

조선 유희춘 '미암일기' 보관했던 수장시설

지난해 등록문화재 된 담양 모현관 가보니
유물 보호 위해 후손들이 주도해 건립
모현관 편액 허백련 글씨로 유명
미암일기는 현재 미암박물관에 보관



담양 모현관은 조선의 문인 미암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수장하던 공간으로 지난해 연말 등록문화재가 됐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니 오래된 목향의 느낌이 난다. 고적하면서도 한가롭다. 담양 창평읍내를 지나 멀찍이 보이는 산모퉁이를 돌면 저편에 장산마을이 보인다. 아트막한 산자락이 마을을 에워싸고, 앞으로는 그리 넓지도 좁지도 않은 들이 펼쳐져 있다.

목적지인 장산마을은 창평 슬로시티 삼지내마을과 멀지 않다. 머릿속에 슬로시티 장산이 남아 있는 터라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이채롭다. 문명과는 조금 거리를 둔, 그렇다고 완벽하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가 난다.

모현관(燕巖館·등록문화재 제769호) 앞에 당도하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지금까지와 보지 못했던 터라 이곳은 머릿속 상상으로만 존재했다. 상상보다, 기대보다 더 미려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물 위에 떠 있는 아름다운 건물.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하고, 커다랗게 실사한 예술 사진이 세워져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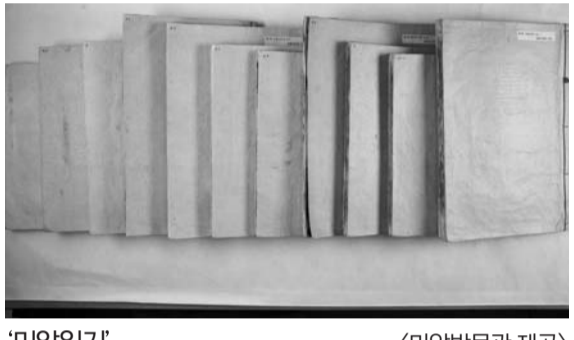
모현관은 지난해 연말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이곳은 조선 중기 문신 미암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 등 관련 고서적을 보관하던 수장시설이었다. 지난 1957년 후손들이 주도해 건립했으며 한국 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물 보호를 위해 건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높다.

모현관 남쪽으로 수령 600년이 된 느티나무들이 서 있다. 마치 오랜 세월 성문을 지키는 늙은 수문장 같다. 허투루 들어서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난다. 모현관이 자리한 연못은 노루골이라 불렀던 곳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이 보인다.

이처럼 모현관은 건물에 담긴 의미뿐 아니라 주변 풍경이 선사하는 정취도 만만치 않다. 봄날 가녀린 푸른 빛이 감도는 이맘때의 풍경도 그렇지만 산등성이에 소복이 눈이 쌓인 겨울, 오색의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도 이곳은 한쪽의 산수화를 떠올리게 한다.

석조 조적식 구조로 이뤄진 건물은 외벽에 푸른 돌을 쌓은 것이 특징이다. 비슷한 시기 건물로 1955년 지어진 전남대 구 법대 본부와 구 공대본부 등이 있는데, 이곳에 전설이 쓰였다는 보고가 있다.

모현관은 지난 1957년 유적보존회가 설립되면서 건립



'미암일기' <미암박물관 제공>

이 가시화됐다.

당시 참여한 사람의 일면을 보면 미암일기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광주고등법원장, 전남대총장, 서울대총장, 광주시의회의장, 목포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당시 발기문에 '국보 미암일기'라고 표현된 것만 봐도 이곳에 투영된 문화적 심미안을 느낄 수 있다.

한편으로 유희춘의 '미암일기'는 개인의 일기 중 가장 양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이 많다 보니 임진왜란 이후 선조실록을 복원하기 위해 미암일기가 참고자료로 쓰였다 한다. 현재 '미암일기'는 11권이 전해온다.

미암일기는 유희춘이 55세인 1567년 10월부터 1577년 10월까지 쓴 기록이다. 세상을 뜨기 2일 전까지 일기

를 썼다 하니 그의 기록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 있다. 일기에는 일상생활은 물론 당시 국정에 대한 견해, 공사(公私)에 대한 사실 등이 기록돼 있다.

특히 미암일기에는 유희춘이 그의 부인 송덕봉과 나누는 이야기와 전해온다. 송덕봉(1521~1578)은 당시 유교적 규범과는 다른 자기 주장이 강한 당당한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가부장적 시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글로 썼던 여인이다. 본명은 송동개였지만, 드물게 '덕봉'이라는 호를 사용했다. 신사임당이나 허난설헌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여성 문인으로 손색이 없는 문장을 견비했다는 평이다.

안타깝게도 덕봉의 문집 '덕봉집'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덕봉에 대한 기록은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보물 제260호)에 실려 있을 뿐이다.

모현관의 편액은 허백련의 글씨로도 유명하다. 허백련의 글씨임을 알 수 있는 '백련'이라는 글씨가 현판 밑에 있다.

현재 미암일기를 비롯한 유물은 인근 미암박물관에서 관리한다. 미암박물관은 지난 2015년 모현관에 있던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 건립됐다.

미암박물관 관계자는 "현재 미암일기는 보존처리를 위해 서울 관련 기관에 보내졌다. 4월 이후에나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예술인 도와 드려요”

창작지원금·생활자금 융자 등
광주문화재단, 지원책 추진

코로나 19 여파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예술인복지지원장구 강화, 신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진행, 행정적 지원 등이 고려 대상이다.

먼저, 재단은 이달 내로 지역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피해 및 정도를 파악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적절한 지원 대상·방식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예술인복지지원장구를 통해서도 다양한 지원정책 안내를 강화한다.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지원신청 태형을 비롯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특별융자,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연결 등의 지원을 한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

는 예술활동증명,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국비를 지원받는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을 통해서도 예술인 50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예술인이 파견돼 6개월 동안 예술교육,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술인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다.

이밖에도 보조금법과 계약법의 유연한 적용을 통한 행정적 지원도 진행한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사업 일정 조정과 함께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무관객 공연도 허용할 계획이다.

업체·단체와 맺은 계약에 대해서도 과업 범위 조정,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제외, 대체·대용품 활용 등의 방식으로 업체와 단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김윤기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술인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키워드 ‘부자되기 열풍’

교보문고 3월 조사 결과
20위 중 ‘부자’ 키워드 7종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키워드는 ‘부자되기 열풍’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교보문고 3월 1주차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위 중 제목에 ‘부나 부자’가 키워드로 포함된 책이 무려 7종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은 제외)

‘부나 부자’가 키워드로 포함된 책은 경제경영 분야 1월 5종에서(4주차) 2월 8종으로 늘었으며(1주차) 2-5주차 기간에는 8종을 유지했다. 3월 1주차에는 20위 내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이 빠지면서 7종이 됐다.

경제경영 분야 1위는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이 차지했고 3위에 ‘내일의 부. 1: 알파편’, 6위에 ‘내일의 부. 2: 오메가편’, 8위에 ‘부의 추월차선’, 10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 11위에 ‘부의 인문학’, 12위에 ‘부의 확장’이 올라왔다.

이들 책들은 돈을 대하는 법과 부를 축적하는 세상원리를 저자 나름의 철학과



노하우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주 독자층은 남성이 57%로 다수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26%, 20대와 50대가 각각 15% 순이다.

현재 경제경영 분야에서 ‘부자’ (‘부’는 제외)를 키워드로 한 제목의 책은 약 1000종에 이른다. 해당 책들은 올해 역대 최대 판매를 보였는데 1월 1일부터 3월 15일 현재까지 작년 동기 대비 71.6% 가장 신장했다. 10년 전 2011년 대비 108%로 두 배가 넘는 신장률을 기록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최근 ‘부자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의 인기는 세계적인 저금리, 벌어지는 빈부격차로 인한 불안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공기관 도서 구매 지역서점 우선 이용을”

문체부, 지자체·교육청에 요청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교육청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밝혔다.

아울러 도서납품시장에 등장한 ‘유령서점’들을 견제할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이 수익을 개선할 수 있게 하자는 취

지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도 도서정가제 적용으로 과거 도매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도 공공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문체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공공·학교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서점 우선구매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역업체, 건설업체, 음식점 등 도서와 무관한 업종 업체들이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서점’이 등장하면서 지역서점 상생 취지가 약화되면서다.

이에 대응해 문체부는 현재 11개 지자체에선 조례,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실제 도서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요청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p> <p>모든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p> <p>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p>우리 뷔페</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p> <p>2월17일 오픈!! 청정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p> <p>☎ 062)381-0066, 010-3085-0140</p>	<p>대성각 중화점</p> <p>동구 무등로306-6 (구 시청위 도로변)</p> <p>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p> <p>전화주문 시 신속배달</p> <p>☎ 062)430-5342</p>	<p>남 문 냉 동</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p> <p>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p> <p>에어컨 전문설치</p> <p>☎ 061)333-2779, 010-3610-2779</p>
<p>향촌</p> <p>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차평동)</p> <p>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p> <p>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p> <p>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p> <p>☎ 062)371-0583, 010-3947-0005</p>	<p>김동일쉐프</p> <p>동구 지호로42(자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p> <p>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장전골, 무침조림</p> <p>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p> <p>☎ 062)228-1975, 010-9622-8938</p>	<p>개성전통한방삼계탕</p> <p>서구 차평동 케이월하이빌 1층</p> <p>삼계탕전문점</p> <p>포장가능합니다.</p> <p>☎ 062)383-3454, 010-2106-0424</p>	<p>남악장례식장</p> <p>전남 무안군 심항읍 남악로 250번길 59-30</p> <p>시그니티 오양병원 1층</p> <p>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p> <p>각종장례용품 업가제공</p> <p>☎ 061)285-0444</p>
<p>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p> <p>북구 운양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p> <p>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p> <p>진료시간: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p> <p>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p> <p>원장 이상선·박민규 ☎ 062)511-3388</p>	<p>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p> <p>동구 대인동 324-18번지</p> <p>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탕의 맛!</p> <p>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p> <p>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p> <p>☎ 062)464-1425</p>	<p>연아불교용품</p> <p>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앞)</p> <p>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p> <p>조상웃. 양초 판매</p> <p>☎ 061)334-0088</p>	<p>고 전 방</p>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p> <p>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희중 ☎ 062)224-4869</p>
<p>꽃전광주센터</p> <p>동구 금동로4가치파원전철역부근3번출구</p> <p>거동이 불편하신분, 어깨·허리·무릎·관절이 불편하신분</p> <p>꽃전 자석 쿠션 신발</p> <p>☎ 062)232-6625, 010-3640-6625</p>	<p>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p> <p>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p> <p>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p> <p>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p> <p>☎ 061)337-7712, 010-5288-3257</p>	<p>동 양 철 학 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당옆길)</p> <p>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p> <p>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초 대 화 랭</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p> <p>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박 당 화 랭</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p> <p>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p>신 신 예 술 의 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p> <p>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